

**[제목]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할 때(눅13:6-9)**

[일시] 2014년 10월 12일 주일낮예배설교안

[찬송] 찬498장 거룩하신 주 하나님, 찬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찬 464장 믿음의 새 빛을

PW: 믿음, MIW: 회개에 합당한 열매, 가주어: 제자들

T.S: 믿음이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 1. 서론

### 1)인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며, 예배중에 임재하시어 복을 주십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얼마 만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6개월일까요? 혹은 1년? 아니면 3년, 아니면 10년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얼마 만에 복을 받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특별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복이 임하지 않을 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 2. 문제제기

### 1)본문요약 및 의문점 제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말씀으로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으로부터 어떤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는 찍혀버림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무를 심다보면 어떤 나무는 곧잘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는데, 열매를 좀 맺지 못한다고 그 나무를 제거해버린다는 것은 좀 과한 조치가 아닐까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나무가 혹은 병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지력이 약해서도 그럴 수 있고, 가뭄이 들어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냥 잘라버리는 것은 주인의 조급한 조치는 아닐까요?

### 2)청중적 접근

사람은 사실 저마다 처리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배웠어도 즉시 그것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참을 기다려야 그제서야 발동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때까지 열매가 없는 자를 그냥 제거해버린다는 것은 과연 주인이 잘한 행동일까요?

### 3)본문문제배경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초기의 시기였던

A.D.29년경 갈릴리의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2가지 질문을 던진 어떤 사람에게 그 대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며,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행한 어떤 '결과물'을 의미하고, 다시 한 해를 더 연장해달라고 하면서 거름을 주려고 하는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는 무화과의 실과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가 열릴 시기가 되었을 때, 그는 무화과 실과를 얻기 위해 그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열매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한 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그리 갔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3년차 되는 해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포도원지기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의 실과를 얻기를 원했으나 발견하지 못했으니, 너는 그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 땅조차 쓸모없게 만들겠느냐?"

### 4)문제발생원인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가 없다면 즉시 제거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만일 열매가 없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듯 그대로 있다면, 당시 갈릴리사람들이나 실로암 땅대에 치어죽은 열여덟 사람처럼 그 사람도 순간에 갑자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 5)문제 심리묘사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결정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 3. 문제해결

### 1)인간의 현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결코 주님의 말씀에 투덜거리지 않고, 혹시 자신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에 상응하는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 2)하나님의 주권(방법, 심정)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들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 또한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 가. 많은 사람들의 착각 2가지

오늘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게 살고 있으니, 내가 일찍 죽는 일은 없을거야.” 둘째, “내 인생은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기에, 지금부터 마구 서두를 필요는 없어. 좀 천천히 하자구.”

그러나 아닙니다. 회개할 일이 있으면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고는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 나. 만약 우리도 회개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죽음을 당한다면 갑자기 멸망에 처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에 파견나온 빌라도에게 죽임당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임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것이 결코 아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즉 이 말은 “항상 회개하고 있어야 언제라도 죽음이 찾아와도 끄떡없게 되니 너는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그 위에 치어서 죽은 열 여덟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가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갑자기 멸망을 당할 것이다.” 즉 이 말도 사람이 사고를 당해 죽는다면 즉시 그는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그가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우리에게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단원과 학생들은 자신이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종말론적 심판은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세상 종말이 와서 종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이 종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죄가 혹 적다고 하더라도 민족으로 죄를 짓는 것이 있으면, 민족적인 재난이 쏟아질 때에 얼마든지 같이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진에, 홍수에, 태풍에, 쓰나미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도 우리 인생에 죽음이 찾아올 수 있음을 알고 깨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고 있어야 어떤 사건을 만나도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다. 회개하고 충성하여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내게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를 항상 살피라.

회개와 충성은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교회에도 3년 이상 매주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이미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을 때에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첫째, 형통함과 번성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해집니다. 병원에 갈 일들이 줄어듭니다. 둘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증식됩니다.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셋째, 성품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 어떤 사람은 건강의 축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직장의 축복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한 그냥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저주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의 핵심이 우상숭배와 동성연애같은 것임을 배웠습니다. 영적인 간음과 육체의 간음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영적인 간음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 육체의 간음은 가정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더불어 고난의 열매도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숭배했던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한다면 핍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용해오던 귀신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추도예배나 장례예배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예전처럼 추도예배나 장례예배를 드린다면 당신은 그 어떤 핍박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운대로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른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될지도 모릅니다. 핍박 중에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 사람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지도 모릅니다.

## 라. 중요한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는 반드시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귀신의 역사가 끝납니다. 저주가 끝납니다. 사건사고가 일어나도 나를 피해서 갑니다. 죄가

있는 곳에만 마귀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그를 귀히 보십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십니다.

**마.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기한은 정해져 있다. 그 시간은 갑자기 올 수도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 기간을 3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 중보자의 탄원을 통해 그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될 지도 모릅니다.

포도원주인은 무화과나무가 실과를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2~3년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와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화과가 열릴 수 있는 햇수가 왔는데도 그 무화과에서 열매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말합니다. “찍어버리라. 땅까지도 황폐해질까 두렵다”

우리는 여기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 들을 수 있습니다. 포도원주인은 3년간이나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나무는 심은 그 해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3-4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주인은 적어도 나무를 심어놓고 3~4년을 기다린 후에 열매를 찾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찍어버리라고 명령한 시점은 그가 무화과를 심은 때로부터 6~7년은 지난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주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3~4년을 순종했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축복의 형태로든, 핍박의 형태로든 반드시 어떤 결과물을 얻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이 축복도 받지 않고, 핍박도 받지 않고, 6~7년을 그대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자일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오늘날과 같이 민족적으로 범좌하는 있는 세상 속에서는 제2의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이미 예고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생활을 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신에게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는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오늘 또 다시 세월호 사건에 일어난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 안에서 멸망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 4. 영적 법칙

믿음이란 항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지 3~4 혹은 6~7년이 지났는데 자기에게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면 그는 필시 회개하지 않은 자이든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자입

니다. 그런 자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어떤 축복도 주어지지 않고, 어떤 고난도 찾아오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삶이 평탄하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축복을 받든지, 고난을 받든지 할 때 여러분은 회개하는 자요, 충성된 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아무것도 자신에게 없는데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에게 제2의 세월호사건이 터진다면 그는 죽는 즉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어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반드시 결과물들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물들을 살펴보아라. 어떤 것은 축복의 결과물일 것이며, 또 어떤 것은 고난이나 핍박의 결과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 자는 제2의 세월호 사건을 만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런 자는 회개하는 자이며 충성된 자이므로 당장 죽어도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 5. 복과 결단

### 1)복

#### 가. 헌신자가 받는 복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부터 자신의 살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무슨 열매를 맺고 있나를 살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그들은 적어도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 나. 청중의 더 큰 복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3~4년 안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자에게도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열매가 되었던 고난의 열매가 되었던 그 사람은 당장 죽는다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 2)결단

#### 가. 결단의 필요성과 방법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그동안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그치십시오. 제사를 지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주변에 회개복음을 모르고 살공 It는 그리스도인 친척이 있다면 그들에게 회개복음을 들려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열매가 그에게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는 그동안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

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 받게 된다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을 때에 회개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꼭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죽을 무렵에 되어도, 자신은 예수 믿고 있으니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겠지 하면서 손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다가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사람이 죽을 무렵이 되면 지옥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귀신들이 올라옵니다. 회개치 않으면 그러한 귀신들에게 끌려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 나. 결단의 축복

자, 오늘부터 여러분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축복에 상응하는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도 살펴보십시오.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진정으로 회개하여 다시 출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올 해에 한 번 더 거름을 주어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장합니다. 3년에서 4년, 늦어도 6~7년 안에 반드시 여러분은 회개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십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반드시 회개복음, 천국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혹 이러한 일들 때문에 축복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행여 핍박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들 자체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자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 한 시대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교회가 회개의 복음을 전한지도 3년에서 4년이 되어갑니다. 이제는 우리교회도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회개의 결과물이요, 주님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게 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끝까지 회개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천국에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지 천국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제는 나도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열매도 맺고, 영혼의 열매도 맺으십시오.

### <하나님의 장자의 명령과 선포>

#### 1) 감사와 회개

주여, 열매맺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죽음 앞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가 신앙생활한지 3~4년 혹은 6~7년이 지난 시점에 반드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열매없는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는 듯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 2) 장자권 누림의 결단

주여, 이제는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축복의 열매든 고난의 열매든 그것은 오로지 참된 신앙의 열매인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 3) 장자권의 누림, 명령과 선포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도 곧 축복된 신앙인 것처럼 속여왔던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회개를 가로막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열매를 가로막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켠지어다. 내 영혼아 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을지어다.

#### 4) 오늘의 말씀의 핵심

1. 성도라도 죽음 앞에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2. 민족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개인의 죄와 상관없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구나.

3.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회개하는 삶이었구나.

4.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갑작스런 재앙에 멸망을 당할 수도 있구나.

5. 3~4년 혹은 6~7년이 지났어도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구나.

6. 참된 신앙인이라면 수 년 안에는 반드시 그것이 복이든 고난이든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구나.